

2019 새 설계

유 두 석 장성군수

“미래 먹거리 4대 관광자원 개발 ‘장성관광’ 시대 활짝 열 것”



“황룡강 르네상스 완성을 향해 매진하겠습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해를 장성의 전성시대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 군수는 황룡강과 장성호, 축령산, 백양사로 대표되는 장성군의 4대 관광자원을 ‘미래 먹거리’라 부른다. 관광자원의 개발과 농가소득의 증대가 장성군이 성공적인 ‘도농복합도시’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유 군수는 2년 연속으로 100만명에 가까운 관람객을 끌어모은 노란꽃잔치를 발판 삼아 황룡강 일원을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유 군수는 황룡강의 격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국가정원’을 목표로 올해는 그 사전단계인 지방정원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황룡강 상류에 있는 황미르랜드에 힐링 허브 정원과 테마 공원을 조성해 일 년 내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갖춘다.

또 장성을 초입에서 황룡강으로 이어지는 청운 지하차도를 확장하고 강변 주차장을 건립하는 등 교통 인프라도 확충한다.

장성읍과 황룡강의 연결을 통해 읍 시가지 상권도 살린다는 구상이다.

매년 100만 인파 찾는 황룡강 일원 힐링정원 등 조성 사계절 관광지로 장성호·축령산 편백숲 가치 높이기

지난해 수변 길을 정비하고 출렁다리를 개통한 장성호 일원 개발도 서두른다.

나무 데크길 2.5km 구간을 늘리고 편의시설과 화장실을 확충한다.

유 군수는 “장기적으로는 수변 길 제2코스 생태 탐방로를 추가로 조성해 장성호 100리길을 만들겠다”며 “담 하루에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강수욕장과 생태 학습장을 꾸며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축령산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군수는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편백숲은 보존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방문객도 산림욕을 편하게 즐길도록 인프라를 갖추고 천년고찰 백양사의 뿌리 찾기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백암산에 자리한 백암사의 명칭 찾기를 추진해 군민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한 농업정책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푸드 플랜’ 시스템을 중심으로 소득 창출을 꾀한다.

유 군수는 “장성 농업인의 68%가 중소규모 농가인데, 이들의 실질적 소득을 창출하는 농업 유통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40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과 ‘청년창업농 스타트업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배내장 수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만 지원되는 대상포진 예방 접종도 65세 인구 전체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 경로당마다 공기정정기와 식기세척기, 심장제세동기를 보급해 어르신의 편의와 안전을 높인다.

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비 3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교통소외지역에 거주하는 등·하교에 고충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행복택시 제도도 운영한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이자 광주·전남 상생 과제로 채택된 국립 심혈관센터 설립은 정부·국회·전남도 등과 함께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성에 설립해야 할 당위성을 꾸준히 내세우며

2019년도 주요 사업은

- ▲황룡강과 장성호 등 관광자원의 개발과 농가소득 증대
-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한 농업정책 강화
-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과 청년창업농 스타트업 컨설팅 추진
- ▲아동·청소년·노인 대상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 ▲국립 심혈관센터 설립 정부·국회·전남도와 상생 해결
- ▲고려시멘트 부지 문제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차근차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려시멘트 부지 문제로 기업 이권과 주민 주거권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 만큼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을 생각이다.

올해는 이 일대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한다.

끝으로 유두석 장성군수는 “민선 6기는 황룡강 르네상스를 향한 장검다뤘다”며 “이제는 황룡강 르네상스가 꽃을 피우도록 올해도 군민과 함께 한 발 한 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군, 산림소득증대 지원 사업 추진

버섯·산나물·관상 산림식물류 등 79개 품목 대상

화순군이 ‘2019년도 산림소득증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9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총 5억원을 투입하는 산림소득증대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군은 올해 ▲단기소득 임산물 경쟁력 제

고 ▲생산·가공·유통시설 기반 구축을 위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유통기반, 상품화지원, 생산기반지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 생산단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등 1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실류와 산림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6개 종류 79개 품목이 지원 대상이다.

군은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총 사업비의 40% 이상(자부담 60% 이하)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 자격은 경영체 등록을 한 임업인과 산림조합,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오는 2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장 실사

후 산림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이나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체계를 구축해 지역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계획”이라며 “임업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장성 공공실버주택 150가구 입주 시작

‘미래형 노인복지주택 모델’로 장성에 들어선 공공실버주택<사진>의 입주가 시작됐다.

국토교통부가 장성을 영천리 장성군보건소 주변에 건립한 공공실버주택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거와 복지, 건강, 경제활동 관련 시설을 한데

모은 현대식 복합 노인 주거시설이다. 건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총 164억 원은 정부 재원과 민간기금으로 마련됐다.

건립비는 151억5000만원으로 건립 후 각종 시설 운영에 필요한 5년간 관리비 12억5000만원도 포함됐다.

25㎡(14평형) 90가구와 35㎡(18평형) 60가구 등 150가구 규모다.

입주를 시작한 공공실버주택은 친환경 건축재를 사용했고 전자식 높이 조절 세면대 등을 갖췄다.

고령의 보행자를 배려해 건물 전체 문턱을 없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인 설계로 난방비 격정



도 줄였다.

건물 1층에는 물리치료실, 건강관리실, 취미실, 여가활동실, 부업실 등을 갖춘 실버복지관을 조성했다.

입주자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영구임대주택 수준으로 책정됐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보증금 185만~276만원에 월 임대료 3만6000원~5만5000원이며, 일반 저소득층은 보증금 1028만원~1531만원에 월 임대료 8만6000원~12만8000원이다.

장성군은 국가유공자와 홀로 사는 노인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입주자를 선정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담양군, 2019년도 농업분야 주요 보조지원사업 설명회

담양군은 최근 창평면과 수북면, 담양읍에서 이장, 작목별 대표, 농업인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농업분야 주요 보조 지원사업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진>

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친환경농정과와 친환경유통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정원과, 농어촌공사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하는 주요 지원사업 135개 사업에 대한 지침 설명으로 일반 주민들의 보조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 청결·위생 농업과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

다.

특히 사업 추진에 대한 일방통행식의 지침 설명에 국한하지 않고 일선 농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의견 수렴 등 소통을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막연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농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행정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며 “농업인들에게 앞으로의 농업정책에 대한 신뢰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